"대선 개입 규명 특검" 뭉치는 野

민주+정의+安+재야 연석회의

특검법안 공동 발의 TF 구성 결의

각계 각층·지역별 시국선언 확산키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대표 등 범야권 인사들은 12일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특검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 발의키로 하고 이를 위한 TF(태스프포스) 구성을 결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당 지도자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소설가 황석영 씨, 조국 서울대 교수, 나승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장주영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지관 스님,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남부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3가지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각계 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해 1인 시국선언운동 및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연석회의가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 논의에 앞서 지난 대선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여권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한 뒤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안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샷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 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에 손잡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新야권연대' 선거연대로 이어질까

내년 지방선거 '민주+정의+安+α' 관심 … 與 "야합연대" 견제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첫걸음을 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新)야권대연합'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이 제외됐지만 범야권 인사들이 뭉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들이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뭉쳤지만 야권의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고 안철수 발 야권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활동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석회의가 흘러갈지를 당장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단 연석회의가 출범한 목적이 특검과 국정원 개혁인 만큼 원내에서 특검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간 3각 정책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국정원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연석회의가 '신(新) 야권연대'로 발전하는 모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연석회의를 '대선불복'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 도입도 '정쟁의 불쏘시개' '야합연대'라고 폄훼하는 등 견제하는 이유도 더 발전한 형태의 야권연대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도 연석회의가 '정치공학적 연대'로 비치는데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기구 출범이 아닌 회의 개최"라고 선을 긋고 있으며 정치세력마다 다른 셈법을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 야권연대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연합공천이나 지역을 나누는 등의 과거 방식은 국민동의를 얻기 어렵겠지만,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모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에는 일정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안 의원 측은 사안별 연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거연대'나 기구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총장 회담 제의

광주전남 시민행동 "새누리당 대선공약 이행하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사무총장 회담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7월25일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 111일째"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그야말로 오매불망 기다렸다"면서 "100일이면 동굴 속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입을 닫은 채 동굴에서 나올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결정을 회피할수록 그 피해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룰이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공천 폐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한 뼘이라도 논의를 진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 한달음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서 "약속 이행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광주전남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목포에서 전국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여야 중진의원들을 면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日만평

- 김종두

뭘 너무 모르십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모두 수고한 가족께 힐링이 되는 해외여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수능 EVENT
중국북경 청화대학방문 온천힐링 4일
ALL포함 750,000
제1차11/26, 제2차12/03, 제3차12/10
※6대특전제공 :무안공항출발,아시아나항공자국기이용
북경4대관광지,중국최고 공연관람,북경5대특전제공
중국최고의명문대청화대학교방문,수험표지참시수험자100,000원할인,
NO TIP상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겨울방학 가족과함께 일본히타 조이펜션으로 온천 여행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11/20,23,26,28,30,12/03,06,08,15,19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기사가이드팁
최소출발8명부터가능/주말요금별도문의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항공 499,000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기사가이드팁 ,국내수송비
※특급호텔 2박인 경우 1인당100,000원추가
최소출발8명부터 가능
출발일 11/20,23,26,28,30,12/03,06,08,15,19

강추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199,000~
출발일 11/20,23,26,28,30,12/03,06,08,15,19
※포함:왕복선박비,호텔2박

오사카,교토 와카야마
특급호텔 규슈 3박4일
항공 799,000

섬과 일본 최고의 에메랄드 빛 형형색색의 바다를
자랑하는 오키나!!! 연중 온화한 날씨(연평균 기온 20도~22도)
겨울방학 일본오끼나와로 가족여행 떠나보세요!!!!

품격 오끼나와 3박4일 899,000
출발일 1/9,16,23,2/6,13,20
실속 오끼나와 2박3일 599,000
기간 1/5,7,12,14,19,21,26,28, 2/2,4,9,11,16,18,23,25
※불포함 : 여권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

겨울방학에 무안에서 떠나는 동남아여행(방콕,싱가폴)

특급호텔 숙박
기간 2014,1/04~2/22 (매주토요일출발)
무안 – 상해/싱가폴 5일 1,359,000
무안 – 상해/방콕,파타야 5일 1,050,000
※불포함:현지가이드,기사팁,여권및 개인경비

무안–베트남 캄보디아 전세기
겨울방학 세계가 안정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절경과 찬란한 역사와의 만남!!
(12/27~1/21, 단 6회) ※건교부 인가 조건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준특급 1,299,000
※불포함:개인경비,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

겨울방학때 무안공항 떠나는 캄보디아(씨엠립)직항 !! BBC선정죽기 전에꼭 가봐야할곳
무안– 캄보디아 (씨엠립직항)
기간2014,1/01~2/26 (매주수요일,토요일 출발)
3박4일 599,000 3박5일 9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40), 싱글차지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장사/장가계 5일 899,000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 1,069,000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팁

겨울방학 미동부 IVY LEAGUE 명문대 탐방!!
IVY LEAGUE에서의 체험~!! 꿈과 희망의 시간!!!!
출발일 : 1/13일 선착순 : 30명
미동부 아이비리그 9일 3,790,000~
※특 전 : 자국기이용(ke/oz), 유명강사의 직접강의, 현지학생에게 듣는 IVY LEAGUE 미국 주요도시 TOUR, 전문인솔자동행
※불포함 : 항공TAX, 유류할증료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포함사항 : A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